즉시 배포용: 2019년 12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진주만 추모일 맞아 조기 게양 지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진주만 공격 추모일을 맞아 12월 7일 토요일, 주 정부 건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뉴욕 주민 40명을 포함한 2,400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망했습니다.

"78년 전, 우리나라의 역사는 진주만 공격에 의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날은 모든 미국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용감한 남성과 여성이 보여준 용기를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악명 높은 날에 궁극적인 희생을 치른 2,400명 이상의 군인에게 결코 갚을 수는 없는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국가와 주가 근거로 하고 있는 이상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함으로써 그들을 추모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분열되는 이 시대에, 이날은 우리나라가 큰 역경에 직면하여 어떻게 단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